산업통상부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12.(목)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첨단산업 투자 본격 실행

- 삼성전자 HBM 패키징 팹 등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으로 투자 실행 본격화 -
- 산업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 발표 -
- 8대 앵커기업 투자에 이어 소부장 기업 투자 확산 및 상생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12일(목)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 HBM 패키징 팹 건설 현장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7월 2일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및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1.12(목) 오전 10:00~11:50 / 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
- 참석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등 100여명
  - 중앙정부 :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 지방정부 :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 민간기업 : 8대 앵커기업(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하이닉스, SK텔레콤, 셀트리온, 네이버) 및 소부장 협력기업(대덕전자, 심텍 등)
- 행사내용 : **(1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2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❶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산업부)
  ❷ 지방정부 메가프로젝트 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충남도)
  ❸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방안(중기부)
  ❹·❺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삼성·SK하이닉스)

착공식에 이어 8대 앵커기업(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하이닉스, SK텔레콤, 셀트리온, 네이버) 및 협력기업(대덕전자, 심텍, FNS테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산업부, 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과 함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상생협력 방안이 발표되었다.

〈1부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이번 착공식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3개사의 착공식이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삼성은 AI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메가프로젝트를 충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6조원을 투자하여 신규 HBM 전용 패키징 팹을 건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HBM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AI시대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기는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하여 GPU·CPU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AI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지역에 67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8.6세대 IT용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충청권을 글로벌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부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이어서 개최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는 8대 앵커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점검회의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충청권을 첨단산업과 국토 균형 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❶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❷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❸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이하 충전대 TF)를 통해 ▲기업별 전담자 지정, ▲인허가 사전컨설팅, ▲절차 병행처리 등을 추진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그 결과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3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앵커기업과 연관된 112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계획 약 23.6조원이 추가로 발굴되었으며, 첨단산업 분야 대·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충청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업종** : ❶반도체17개社[2.4조원], ❷디스플레이 3개社[0.2조원], ❸이차전지 10개社[2.2조원], ❹바이오 17개社[5.9조원], ❺방산·수송 25개社[1.0조원], ❻AI·기계 등 40개社[11.9조원]

◈ **기업규모** : 대기업 8개社[6.0조원], 중견·중소 100개社[16.5조원], 외투 4개社[1.1조원]

◈ **투자지역** : 충남 56개社[11.9조원+], 충북 26개社[5.0조원], 대전 17개社[4.7조원], 세종 13개社[2.0조원]

* 세부내용은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불가

종합지원방안 ① : 8대 앵커기업 10대 프로젝트의 투자 가속화

먼저, 8대 앵커기업 10개 프로젝트는 금년 중 6개 프로젝트의 착공을 완료하고 '27년 2개, '28~'29년 2개 프로젝트의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단축을 통한 조기 착공 사례를 확산하여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산업단지계획 변경·안전영향평가 등 투자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도 신속히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는 차질없이 공급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장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지원방안 ② : 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다음으로, 앵커기업의 투자가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의 투자도 앵커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세액공제, 정책금융, 특구 확대 등 투자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첨단국가산단 4개를 조성하는 한편 소부장(4개)·첨단산업(3개) 특화단지를 지원하여 소부장기업과 앵커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30년까지 충청권에 총 1.9조원을 투입하여 첨단제품·기술 실증, 성능·안전 평가 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분야 14개 첨단산업 기반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소부장-앵커기업 공동 R&D 17개 과제에 '28년까지 487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화와 앵커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충청권 첨단산업 기반인프라 구축 계획 >

반도체	첨단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30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센터** 구축	~'30
	방사광가속기 4대 첨단산업 공통	~'29
바이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29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 센터	~'30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랩	~'29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30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소부장 **실증센터**	~'28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	~'30
배터리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	~'26
	빅데이터 기반 **배터리 공정 고도화** 센터	~'28
	전고체전지 제조지원 센터	~'28
	중고압급 배터리 **환경신뢰성 평가** 센터	~'26
	배터리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센터	~'30

종합지원방안 ③ :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기업수요에 맞는 첨단산업 전문·실무인력을 충청권에서 연 1만명 양성한다. 충남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신설과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산업 업종별 아카데미, 부트캠프, 마이스터고를 통해 실무인력을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 교육과 M.AX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3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입하여 기존 산단을 청년친화·첨단산업·AX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산단에 ▲문화·편의·혁신 시설 투자와 노후공장 리뉴얼 등 청년친화 산단을 조성하고, ▲산단 내 AI인프라(AIDC, 5G특화망) 구축과 AX실증 및 확산으로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오늘의 착공을 시작으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앵커기업과 소부장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충청권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한종호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4422)
			주무관	염정아 (044-203-4428)
			주무관	강승현 (044-203-44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